

# “5·18 ‘잊지 말자’ 감정 호소보다 기억할 이유를 설득해야죠”

담양 한빛고 전교생 5·18 민주묘지 도보행진

### 간접 경험한 ‘5월’ 익숙할 뿐 느낌 없었지만 역사 현장 직접 보고 민주주의 가치 깨달아 성숙한 민주주의 위해 우리 식으로 계승할 것

“5·18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만 강조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계승이 아닐까요? ‘잊지 말자’고 외치며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무엇을, 왜 기억해야 할지 설득력이 없어요. 80년을 겪지 않은 세대가 그날을 잊어 버리고, 5·18을 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어떻게 계승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담양 한빛고등학교(교장 안행강) 3학년 송연우(여·19) 양은 지난 15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 고등학생이 된 후 세 번째다. 그녀의 방문은 혼자가 아닌 전교생과 함께였다. 한빛고등학교는 지난 1998년 개교 이래 매년 5월 18일을 전후해 5·18 현장을 찾고 있다.

지난 15일 새벽 6시, 담양군 대전면 한

빛고등학교 정문을 출발한 전교생 218명은 약 2시간을 걸어 광주시 북구 운정동 망월공원묘지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 학교를 나선 학생들은 묘비에 새겨진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연을 읽은 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그리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추모탑 앞에서 묵념을 마친 후 유영봉안소에 안치된 영정 사진 하나하나를 둘러봤다. 오후 1시 도보로 학교에 돌아온 이들은 달리진 자신을 발견했다.

“저희는 그동안 5·18을 책과 영화로만 접했어요. 그래서 5·18이 ‘이야기’라고만 여겼어요. 그런데 묘역을 찾아 희생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걸 실감하게 됐어요. 우리 눈 앞에서 침몰한 세월호처럼 5·18 역시 광주 시민들이 겪은 ‘현실’이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광주에서 자란 박성준(19)군은 어릴 적부터 5·18을 접했지만 그저 익숙할 뿐, 5월 18일이 다가와도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영상과 책 등 수많은 자료가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일로만 치부했기 때문이다. 박군은 역사를 설명하는 그 어떤 교재보다도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보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큰 가르침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생각으로 한빛고등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현장학습을 펼쳤다. 5·18 기념 도보행진, 4·19 추모식, 동학농민운동 현장 답사까지 모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했다.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조현규(18)군은 지난해 동학농민운동 격전지를 찾은 것이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동학농민운동 현장에서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공부한 후 그 의미와 영향을 노래와 연극으로 발표했어요. 연극무대에 오르려 농민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역사적 사건이 제가 살고 있는 현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느꼈어요. 이후 역사 공부에 왜 중요한지 알게 됐죠.”

이들은 1년에 단 하루지만 국립 5·18 민주묘지까지 걸으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5·18기념 도보행진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담양 한빛고 송연우, 조현규, 박성준 학생(왼쪽부터).

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 후배들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행진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 자신들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35년 전 수많은 광주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

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5·18을 기억하고 우리 세대의 방식으로 새롭게 계승해 나갈 거예요.”

/담양 클·사진=양세영기자 hot@



## 나주·나주배원에·봉산 농협 최우수상 등 지역 농협 15곳 ‘상호금융대상’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중앙회가 평가하는 ‘2014년 상호금융대상’ 평가에서 지역 15개 농협이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상호금융대상 평가는 전국 1154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재무상태, 고객만족도, 보험, 카드, 영업능력향상 등 30개 항목의 신용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수 농·축협을 선정하는 상호금융부분 최고의 시상제도이다.

이번 상호금융대상 수상 조합으로는 나주농협, 나주배원에농협, 봉산 농협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영암농협 등 12개 농협이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는 등 각종 표창과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강남경 본부장은 “전남지역 농협들의 수상은 고객밀착형 상호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며 “올 한해도 농업인과 고객으로부터 사랑 받는 농협, 상호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호남대, 청정캠퍼스로 거듭나다

인공새집 설치 1년만에 이용률 78% 달해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해 산새들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대학이 청정캠퍼스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가 지난해 추진한 ‘산새들의 러브하우스’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호남대 작업치료학과 이두표 교수와 학생들이 최근 관광캠퍼스 일원에서 ‘인공둥지 이용률 확인’ 실험을 가진 결과, 인공새집 설치 1년만에 전체 새집의 이용률이 78%로 설치 후 2달째(지난해 6월16일 기준) 조

양 및 환경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 ‘산새들의 러브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청정 캠퍼스로서 면모를 갖췄다.

이두표 교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 및 ‘조류학’ 수강 학생들은 앞으로도 캠퍼스에 설치한 인공새집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및 관찰을 실시하고, 산새들의 개체 수 증식을 추진하는 한편 조류생태·환경에 대한 현장연구를 통해 학술연구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두표 교수는 “예상외로 인공둥지의 이용률이 대폭 상승하면서 호남대 캠퍼스가 그린캠퍼스로서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푸른 녹음과 산새들의 지저귀이 가득한 친환경캠퍼스로 거듭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호남대 학생들이 1년 전에 교정에 설치한 새집을 관찰하고 있다.

## 광주 동아여고 사제간 ‘허그데이’ 행사



광주 동아여자고등학교(교장 전영타) 교사들이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학교에서 미키마우스·포돌이 등 인형탈을 쓰고 등교하는 제자들을 껴안아주는 ‘허그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동아여고 제공>

## 서해어업관리단 다문화가정 일손 도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정동기)은 최근 무안군 현정면 다문화가정 마늘밭에서 마늘종을 뿌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 전남대도서관 ‘읽고 톡 하다’ 거리 홍보



전남대도서관 직원들은 최근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송정역에서 ‘2015 광주·전남이 읽고 톡 하다’ 사업을 알리는 거리 홍보를 펼쳤다. <전남대 도서관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박인주(정읍보호관찰소장)·신수덕씨 장남 병규군(여수 LG화학) 정공성(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서영숙씨 차녀 고운(광주문정여고)양=23일(토) 오전 11시 50분 광주라페스타 4층 디어망울

▲박준일(광주CBS 대기자)·강정숙씨 장남 현웅(한국기업데이터 대리) 김창욱·장정근씨 장녀 은영(현대미디어 PD) 양=광주피로연=22일(금) 오후 6시 30분 라마다호텔 5층 대연회장. 결혼식=30일(토) 오전 11시 30분 서울 강남웨딩컨벤션 5층 그랜드홀.

▲이경섭(목사)·김희녀씨 장남 인석(전 남대 치과병원 전공의)군 이진서(전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장·주)구산건설 대표)·황선희씨 장녀 은민양=30일(토) 낮 12시 50분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 4층 그랜드볼룸.

### 종친회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진도분원(분원장 이종혁) 정기총회=20일(수) 오전 10시 30분 진도 노인복지관 옆 진도아트센터 2층 010-3728-9355.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북구분원(분원장 이근중) 정기총회=23일(토) 오전 11시 광주전남 도지원 회의실 010-4626-1165.

### 향우회

▲재광 보성군 향우회(회장 정인재) 고향문화탐방=21일(목) 오전 9시 광주 동구 소태회 집결.

### 알림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

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학교근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모집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해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수강생=장구, 징, 팽과리, 북 함께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약 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놀이때 ‘신명’ 단원=연극·탈춤·풍

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사랑모아 가족복지회원=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테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 부음

▲유봉로(전 은석초교 교장)씨 별세 기익(사업)·기열·기덕·기순·기복·순씨 부친상 이영재(전 삼성SDI 고문)·신중빈(전 동아대학교 교사)·심교인(사업)·고경석(전 광주일보 사진부장)·박종명(사업)씨 장인상=발인 19일(화) 서울시 구로 고려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02-2626-2444.

▲김행심씨 별세 박동희(광주시 경제과학과장)·행중(SK건설 부장)씨 모친상 문충호(전 화순이양초등학교교장)씨 장모상=발인 19일(화) 광주영장례식장 062-264-4444.

▲정인채씨 별세 기석(조선대 교수)·지기(자영업)·기정·기영·영미씨 부친상=발인 19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봅니다** 弔

<b>301호 故서양덕 님 (여/90세)</b> 子/子婦 : 박원재/윤순원, 박남재/김선관, 박희재 女/婿 : 박정자/김문원 ●발 인 : 5월 19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2	<b>401호 故박형우 님 (남/74세)</b> 子 : 박기재, 박용재, 박기원, 박지환 未亡人 : 차복순 ●발 인 : 5월 19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3
<b>101호 故차영숙 님 (여/88세)</b> 子/子婦 : 박상현/최경숙, 박상민/이다연 女/婿 : 박희경/김정수, 박희숙/이영민 ●발 인 : 5월 19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5	<b>102호 故이승환 님 (남/73세)</b> 子/子婦 : 이민수/최순희, 이민영/박금자 ●발 인 : 5월 19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6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